

# 현대인을 위한 법회 구성의 제일의\*

—전통과 미학이 충족된 법회—

이 성 운

불교의례문화연구소

- I. 서언
- II. 법회의 일원화
- III. 범음성과 맥락
- IV. 고백문의 낭송
- V. 지문대로 실행
- VI. 결어

---

\* 이 글은 2018년 5월 11일 (사)어산작법보존회가 주최하고 불교의례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제12차 불교의례문화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던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국문초록>

‘현대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법회 의례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공(獻供)과 설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회는 공양 의식의 보궐진언 이전에 청법계로 법사를 청하고 법문이 끝난 다음 하당(下堂)할 때 정근(精勤)을 하는 형식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둘째, 법회에 범음(梵音)을 활용하여 현대법회에 전통의 범음으로 아름답게 장엄돼야 하고, 또 전후(前後) 의식의 맥락이 일치돼야 한다.

셋째, 공양을 올리는 제자(齋者)들이 직접 공양의 간절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아뢰는 것을 듣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께 자신의 정성을 직접 고백하는 경건하고 숭고한 순간을 향유해야 한다.

넷째, 시제(時制)가 없는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과정에 간략히 행할 때의 의식과 광대하게 행해야 하는 의식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는데, 지문(地文)에서 아뢰는 대로 그 행위가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현대 법회 의례가 구성되면 법회 의례는 숭고미와 지성미, 우아미 등이 갖춰져 참여자 누구나 이를 느낄 수 있게 되며, 일원화된 법회, 전통이 이어지고 대중이 참여하는 법회, 지문(地文)과 행위가 일치된 법회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법회, 범음(梵音), 삼보통청(三寶通請), 보궐진언(補闕眞言), 거불(擧佛), 삼귀의, 공양

## I. 서 언

‘현대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불교 법회 의례는 어떠해야 하는가. 본 논제는 불교 법회 의례가 현대인들의 삶에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는 논의돼야 될 한국의 불교 법회 의례의 의문과 양상의 숙지와 이해이고, 둘째는 그것들의 의미와 논리성의 점검이며, 셋째는 그 불교의례가 현대인들이 수용하는 데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의례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가 하는 명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하는 물음이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종교는 의례로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유가 실현된다. 아무리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형식으로서의 의례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내용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교인들은 대체로,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나가는 자력의 종교’라고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불교의례는 대개 소원의 성취를 삼보님 등 특정의 불보살과 신중들께 축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를 ‘기복 불교’라고 하면서 조금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선(修禪) 지상주의와 기복(祈福) 종교들이 우리에게 덧씌운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력에 의지하는 종교라고 해서 열등한 것도 아니고, 자력에 의지하는 종교라고 해서 우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해당 종교를 통해 안심입명하고 그 힘으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위에서 전제한 몇 가지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첫 번째 전제인 한국불교 법회 의례 의문이 숙지된 독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조건 현재 설행된 의례가 옳다거나, 전통이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 향후 논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각 의례 의문의 의미와 그것들이 생성된 과정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는 종교적인 신심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불교 법회 의례와 의문의 전개와 논리의 타당성이 검증되는 자리라는 것을 수용해야 이 논의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간 한국불교 법회 의례의 바람직한 구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이 있지 않았다. 의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그 양상을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의례학적인 논의는 많지 못했다. 일요법회의 구성이나<sup>1)</sup> 법회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sup>2)</sup> 어린이 법회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sup>3)</sup> 등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법회 의례에 대한 논의는 불교신문의 <표준법요집 바로보기>의 “현행 법회의식 이대로 좋은가”<sup>4)</sup>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인들은 현대인들을 위한 불교의례인 법회의 구성에 작동하는 모멘텀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며, 현대인을 위한 법회 구성의 제일의(第一義)는 무엇인가. 이 논의의 여정은 다음의 몇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요일 등에 행해지는 일상법회의 의문과 양상과<sup>5)</sup> 전통의 수록재를 전문 어산 스님과 재가 거사가

---

1) 申圭卓(2013), 147-193.

2) 김응철(2009), 1-36.

3) 제은경(2010), 1-95.

4) <불교신문>2595호(2010.2.3.)-2635호(2010.6.30.).

5) 대상으로 삼은 법회는 2018년 4월 29일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펼쳐진

함께 참여하여 실행하는 경산수륙재교실의 사례를<sup>6)</sup> 중심으로 삼아, II장에서는 헌공과 설법의식의 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고, III장에서는 송주 위주의 의식에 전통의 범음 활용과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 IV장에서는 법주 위주의 주관에 재자의 고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V장에서는 지문의 대사는 독송에 머물지 않고 지문(地文)대로 실행되어야 하는 당위를 찾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송고미와 지성미, 우아미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법회의례가 완성된다. 현대인들이 불교의례에 적극 참여하여 신구의 삼업으로 공양하며, 법을 청하고 설법을 들어 깨달음을 얻어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법회의 일원화

현대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법회는 대개 설법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sup>7)</sup> 사찰에서 일요일이나 초하루 보름 혹은 재일에 행해지는 법회는 헌공의식과 설법의식으로 이원화되어 진행된다.<sup>8)</sup> 그 시작은 의식을 주관하는 스님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천수경으로 도량을 엄정하고 결계하여, 삼보통청으로 삼보를 청하여 가영으로 찬탄하고 자리

---

일요법회이다.

- 6) 2018년 11월 10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흥원사에서 개최된 제1회 경산수륙재는 범음법패 중심의 전통수륙재에서 전통과 현대의 거사들이 참여하여 실행되었는데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산수륙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어장 동주원명이 고문을, 전승제자 혜천 정오를 비롯하여 제자와 재가 거사들이 참여하였다.
- 7) 일반법회의 식순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집회가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입정 청법가 설법 정근 축원 사홍서원 광고사향 산회가”(전북사암승가회 편 (1986), 507)의 순서에서 약간의 가감 있다고 할 수 있다.
- 8) 2018년 4월 29일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펼쳐진 일요법회 등이 그 예이다.

를 권하여 앉으시기를 청한 다음 공양을 올리는 형식이다. 공양을 올리기 위해 정법계진언 이후 공양계송과 4다라니 염송으로 공양물을 변식하여 공양하는데, ‘지심정례공양 모모 불보살’ 하는 형식으로 공양물을 받는 대상인 삼보님을 일일이 거명하며 절하며 진행한다. 이때 법주스님이 요령을 같이 내리면서 사다라니를 염송하는 동안 바라지 스님은 목탁으로 칠정례(七頂禮) 공양을 모신다. 동참 대중은 일곱 번의 정례공양을 합송하며 큰절을 올린다. 이는 공양의 극치라고 할 정도로 장엄하다. 주관 스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의식으로 진행되다가 이곳에 이르면 거의 모든 대중이 일어나 스님의 목탁에 맞춰 “지심정례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하면서 큰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목탁 신호에 맞춰 일어나 다시 ‘지심정례공양’하며 다음 분을 거명하며 행하는 이 의식은 현재 한국 불교 예불의식으로 자리 잡은 칠정례 형식을 빌려 봉행한다. 대중이 친숙해서 참여하는 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다라니를 염송하는 법주스님은 사다라니를 삼칠편 염송하지 않고 삼편만 염송하여 칠정례공양 이전에 끝나게 된다.

이 의식 진행은 대중이 적은 헌공법회에서 한꺼번에 염송하면 소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동참대중이 100여 명 이상이 되면 사다라니 염송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칠정례 공양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일사천리로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보궐진언 탄백 등이 진행되고, 이후에 축원이 이어진다. 동참재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므로 20여 분 이상 진행되었다. 요즘 중대 규모 사찰법회에서는 여러 스님들이 축원문을 나눠 거명하지만 이날 조계사 헌공법회에서는 바라지 스님이 축원을 일일이 거명하였다. 축원을 마치고 동쪽의 중단을 향해 별도의 퇴공의식을 하지 않고 반야심경을 염송하고는 서쪽의 영단으로 향해 법성계를 합송하였다. 천수경으로 헌공의식을 진행한 지 1시

간 5분이 조금 지난 다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다는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sup>9)</sup> 청법가가 제창되고 법사스님이 등단하여 법회가 이어졌다. 설법이 끝나면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과 산회가 제창으로 법회가 마쳐졌다. 이 날 법회에서는 축원 이후 법회를 시작할 때 청법가로 시작하였지만 예전에는 삼귀의를 하고 시작하였다.

삼보통청을 하고 삼정례를 하고 삼귀의를 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조계사 일요법회에는 삼귀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일이나 일요법회를 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삼귀의를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법회의 일원화란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공의식과 법회의식이 둘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심이 결여돼 있고, 논리가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심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부처님을 청해 모셨다. 물론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공양을 올린 대가로 설법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교도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현공의식으로 봉행하는 삼보통청(三寶通請)이라는 의식은 삼보를 청하는 목적이 공양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의례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삼보통청은 상주권공의 축약형이고, 상주권공은 영산재의 축약형이라는 주장은<sup>10)</sup>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좀 더 고찰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영산재는 영산의 석가모니부처님을 청하기 위해 상주삼보를 청해 공양 올리고 영산의 석가세존께 법화경을 설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교의식 대부분은 ‘청하는 의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

9) ‘일요법회를 시작하겠다’는 사회자의 선언은 이전의 전통 현공 법회와 일요 법회는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심상현(2001), 258.

다. 청해 공양을 올리고 그분이 설해주시는 법문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 ‘청하는 의식’ 이외의 의식은 대동소이하므로 고문들은 대개 별도의 의식을 시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문’만 시설하고 있다. 상주권공 의식을 보면, 청해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염송하게 되므로 정대게송(頂戴偈頌)을 염하고 경전을 독송한다. 그렇기 않으면 부처님을 대신하는 법사를 이운하여 모시고 설법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법게송을 한다. 설법이 끝나면 정근을 하고 보결진언을 한다. 보결진언에 대해 ‘공양을 올리려고 했지만 빠져서 보결진언을 한다.’고 이해하는 분이 더러 있지만 보공양진언으로 공양 올리는 것은 끝났으므로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곳에서 보결진언을 하는 것은 법화법석이었던 영산재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대회작법절차>의 구조를 보면 현좌진언 이후 다약게송으로 차를 올리고 정대게와 개경계나 청법게를 한다. 보결진언은 법시(法施)의 보결인데, “대중이 『법화경』 「방편품」을 염송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정설을 다 읽지 못하고 경전을 거두게 될 때 ‘어산’은 ‘서품제일’이 무엇인가 하고 설명을 하고, 보결주를 읽고 ‘중부’는 ‘수경계’를 읽는다.”<sup>11)</sup>고 주석하고 있다. 대만 원도선원에서 보급하는 『80권 화엄경』에는 각권마다 보결원만진언과 보결진언이 포함된 열 가지 진언이 제시돼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으로 공양의식이 끝나고 나면 공양을 마치신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법을 설해주시는 순서인데, 유위의 중생들을 위해 법사를 청해 모시고 부처님을 대신해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거나 개경계 염송을 필두로 경전을 염송

11) 智禪 撰, 五種梵音集』(『韓佛全』 12, 161上). “日促故 未至正說輟經也. 魚山限云序品第一 何也 補闕呪云, 中副 收經偈: 聞經開悟意超然, 演處分明衆口宣, 取捨由來元不動, 方知月落不離天”; 亘璇 集, 『作法龜鑑』(『韓儀叢』 3, 458下. “序方譬信藥受化 五授法見提持安 從如隨法常如 囑藥妙觀多妙普”; 이성운(2012), 148.

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이다. 설법을 하거나 혹은 경전을 염송할 때 짧은 경전은 금방 염송할 수 있지만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은 분량이 많아 여러 날에 걸쳐 법석을 열고 읽게 되는데, 그날 못 읽은 경전을 보궐한다는 의미에서 보궐진언을 염송하는 것이다. 고(古) 의문에는 보궐진언 염송 이전에 4대주나 대승경전을 염송 하라는 지문이 쉽게 발견된다. 그러므로 보궐진언 앞에서 청법가를 하고 법문을 듣게 되면 헌공의식과 설법의식이 일원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 ‘축원을 어떻게 하나’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문을 마치고 법사스님이 하좌할 때 정근을 하고 하단을 마치면 법사스님이나 법사스님을 대신하는 스님들이 봉행하면 된다고 한다.<sup>12)</sup> 법문을 듣는 것은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정근을 하는 것은 선근을 쌓는 것이다.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을 쌓아야 그 공덕으로 소원이 성취되게 되므로 축원의 의미가 배가된다.

다음은 ‘어떻게 신심이 결여되었다고 하는가’에 대해서이다. 한국 불교 사찰 대부분의 법당은 불전(佛殿)이다.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 계시는 곳이다. 이미 부처님이 계시지만 삼보를 청하고 있다.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특정불보살이다. 특정불보살은 삼보의 보편적 속성을 안고 있다. 보편적 삼보를 청해 찬탄하고 공양을 올린다. 그러므로 매 법회 때마다 삼보님을 통청해 공양 올려야 한다고 믿는다면 매 공양 올린 다음 축원이나 설법이 끝나고 나면 돌려보내는 ‘봉송(奉送)’ 의식을 해야 한다. 봉송을 하지 않고 매 번 통청(通請)하기만 하면 상주삼보(常住三寶)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결여될 수 있다. 거룩한 삼보님을 매 번 청하기만 하고 보내드리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청해서 오셨다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의 연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진정 믿음으로 의례를 봉행하면

12) 전통불교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혜천 스님 의견.

돌려보내는 의식이 봉행돼야 한다. 그분들은 진정계(眞淨界)에 계신다고 의문은 전해주고 있다. 중생들을 위해 청을 받아 사바에 오셨다면 다음 날 도량을 건립할 때 다시 청해 모시려면 돌려보내드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일체에 상주한다고 믿는다면 통청할 것이 아니라 일체의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겠노라고 아뢰거나, 아니면 지금 대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그분들을 대신한다면 청할 필요 없이 그냥 정성다해 공양을 올린다고 아뢰기만 하면 된다.

법회의 일원화는 차서의 일원화와 신심과 같은 사고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 완전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한국불교의 의례 수용자들이 의례를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요즘 널리 행해지는 천도재라고 할 수 있다. 49재 혹은 칠칠재로, 우란분제로, 매년 천도재를 반복할 때, 왜 매년 천도재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천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보살님의 위력과 신력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매년 천도재를 봉행하려면 차라리 추선(追善) 공양으로 망자의 공덕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Ⅲ. 범음성과 맥락

법회라고 칭해지는 현대의 의례는 대개 ‘삼귀의에서 출발하여 산회가로 끝나는’ 현대식으로 진행된다. 현대 법회는 독송이나 낭송 위주로만 진행되어 장엄미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범음성이라고 하면 범음소리라고 하여 전통의 짓는 소리를 의미한다. 범음을 익히지 않는 스님들은 범음성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전통 법회에서는 일반 염불로 거불이나 유치 청사 가영 등을 하게 마련이다. 신심이 고양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장중미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회의 엄숙함이 고조되지 않는 한 범음성이 없는 법회가 장중미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종교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의례를 원만하고 장중하게 봉행하기 위해서는 범음성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종교적인 신심을 고양하는 데 범음성이 필수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통미가 넘치는 범음성이 활용될 필요성은 적지 않다. 거불, 상유치, 가영, 헌좌계주, 공양계, 운심계 작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범음을 익히는 데는 법사스님들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중생을 이끌고 대중의 공양을 봉행하려면 법사스님들의 관력(觀力)이 요청된다. 관력이 있어야 변식과 공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음성이 활용되는 각 의식의 전후 맥락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의식의 차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식의 첫째는 거불이다. 현재 일부 법회 등에서 활용되는 삼보통칭 헌공의 거불은 “불타부중광림법회, 달마부중광림법회, 승가부중광림법회”이다. 그런데 이 거불은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거불이라고 할 수 없다. ‘불타부중광림법회’의 광림법회에는 법회에 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서 법회에 오신 불타부중을 거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거불은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승; 나무붓다야 나무달마야 나무승가야; 나무시방불 나무시방승’ 등이다. 불명을 거명하는 것이 거불인데 이때 불명은 특정불보살이 아닌 보편의 삼보를 지칭한다. 이것이 삼신불로 칭명되기도 하지만 거불이라고 할 수는 없다. 16세기 이후 거불로 쓰이고 있는데, 거불이 아니라고 하니 수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불로 이해되는 이 불타부중광림법회는 ‘불타부중유원자비광림법회’의 약식 청사이다.<sup>13)</sup> ‘불타부중이시여, 법회

13) 여기에 대해 간기 미상의 『청문』에는 ‘청불(請佛)’이라는 제목을 부여하고

에 광범하여 주소서<sup>14)</sup>라고 하는 청사를 간략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불로 이해하여 활용되고 있는 역사가 자못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용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과연 불교적인지 물어야 한다. 「깔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조차도 진리인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전정사유(專精思惟)하라<sup>15)</sup>고 하지 않았던가. 현재는 이렇게 거불하고 유치하고 청사를 한다. 유치하고 청사할 때, 특정 법회의 설법주를 청할 때의 거불은 5거불(흔히 6舉佛로 언급됨)이다. 법화거불, 화엄거불, 참경(懺經)거불, 미타거불, 지장거불이 그것인데, 법화거불의 예를 보면 ‘나무영산교주석가모니불, 나무증청묘법다보여래, 나무극락도사아미타불, 나무문수보현대보살, 나무관음세지대보살’의 5거불을 한 후 다시 이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회상을 합송하는 ‘나무영산회상불보살’을 지어가며 불보살님을 위요하는데, 이 의식은 대단히 장엄하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치 청사를 간략히 하는 것으로 창안된 거불을 하며 유치 청사를 한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수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청사와 7정례공양이다. 삼보통청의 헌공의례는 상주권공이나 수륙재회의 상단소청 공양의식이며, 참법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형식이다. 청하여 모신 불보살님의 격에 부합하도록 예경과 헌공이 이뤄지는데, 청사에서는 삼보를 도청하고, 공양은 7정례의 공양으로 행해진다. 소청과 헌공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법귀

있다.

14) 『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 2, p.134상). “小禮單請佛則”이라고 하여 유치하고 삼정례와 사부를 다 청하지 않고 간단하게 청할 때 이렇게 하고 바로 헌좌계주를 하라고 지문하고 있다.

15) Walpola Rahula(1959/1990), 2-3.

16) 전통적인 격조 높은 법회만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응철(2009), 3.

감』(1826)이나 『석문의범』(1935)까지도 이와 장면은 찾아지지 않는다. 현재의 삼보통청은 통청이 아닌 도청(都請)의 형식이다. 도청의 형식이라고 하지만 삼보를 청했으므로 삼보에게 공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칠정례공양을 하려면 일곱 번 청하는 7청으로 하면 된다. 그와 같은 형식은 예참의식에서 많이 등장한다. 내가 예경하고 공양하며 참회하기 위해 일일이 불보살님을 청하는 각청을 하였다면 일일이 각각 청한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된다. 다시 말해 ‘일심봉청 석가모니불’, ‘일심봉청 아미타불’ 하고 청하였으면 ‘지심정례공양 석가모니불’ ‘지심정례공양 아미타불’ 하며 공양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의례의식은 수미일관해야 논리적으로 부합하고 그를 통해 각 삼보님에 대한 신심이 결합되게 된다. 7정례공양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거불과 청사와 공양의 대상이 일치되어야 각 삼보에 대한 숭고한 신심이 고양되어 숭고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권공의 대표적인 의식의 하나인 지장청의 경우 거불과 청사와 공양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거불의 대상은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고, 청사의 대상은 지장보살마하살이고, 공양의 대상은 지장원찬 이십삼존 제위여래불과 유명교주 지장보살과 좌우보처 도명존자 무독귀왕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7)</sup> 지장원찬 이십삼존은 『지장보살본원경』에 등장하는 부처님들로 청하지도 않고 공양을 올리는 격이다. 전혀 전후의 맥락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인간은 맥락이 일치되고 조화롭게 구성된 조직이나 상황, 사물 등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때 종교적 감동은 배가되고 거기서 숭고를 맛보게 된다고 볼 때 현재의 의례에 보이는 모순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 157-163.

다음은 가영이다. 가영은 청해 오신 분을 노래로 그 공덕을 찬탄하며 읊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한국불교 공양의식으로 활용되는 삼보통청은 삼보도청이다. 삼보를 도청하면 삼보의 도청에 적합한 가영을 해야 하지만,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삼보통청 가영은 삼보 가운데 불보를 찬탄하며 맞이하는 가영이 쓰이고 있다. 삼보를 도청하고 불보 가영(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廣大願雲恒不盡 旺洋覺海妙難窮)을 하고 있다. 삼보를 한꺼번에 청하였다면 삼보를 한꺼번에 찬탄하며 맞이하는 가영을 하는 것을 옳을 텐데 법보 가영과 승보가영은 하지 않고 있다. 잠시 법보 가영과 승보 가영을 음미해 보자.

教能詮理中玄 依理修行果自然 寶偈人間方十萬 金文海內廣三千  
圓頂方袍繼佛燈 傳衣說法利群生 歸依不得生分別 休擇凡僧與聖僧<sup>18)</sup>

삼보를 불보·법보·승보로 각각 나눠 청할 때, 불보를 청하는 가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연유를 추론해 보면, ‘일심봉청 불보’ ‘일심봉청 법보’ ‘일심봉청 승보’라고 삼보를 각각 청하던 것이 ‘일심봉청 불보 법보 승보’라고 합해져서 청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앞의 불보의 가영만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보와 승보의 가영이 없다고 해서 법보와 승보님이 언짢아하실 일이야 있을까마는 예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삼보를 각각 청하는 수록재 『중례문』과 삼보를 합해서 청하는 『결수문』의 형식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한다. 경산수록재에서는 삼보를 도청할 때는 『결수문』을 참고하여 다음의 삼보도청 가영을 택하고 있다.<sup>19)</sup>

18) 『梵音刪補集』, 『五種梵音集』: 行布不妨修五位 圓融何碍曆三祇; 『刪補梵音集』: 歸依不得生分別 休擇凡僧與聖僧

威光遍照十方中 月印千江一體同 四智圓明諸上士 賁臨法會利群生

앞의 세 구는 각각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며, 삼보가 법회에 임해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절대적인 신심만을 강조하며, 맥락이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수용하라고 권하는 것이 불교사상과 철학에 적합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논리는 학자들의 논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 구별하지 않을 뿐이다. 가령 진언의 종결사 ‘svaha’를 ‘사바하’라고 하지 않고 ‘스바하’라고 표기하면 당장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 진언은 ‘스와아하아’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 진언 표기의 예에서 보듯이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척을 하지만 모르면 신심을 언급하곤 하는 것과 께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호리유차(毫釐有差)라도 천지현격(天地懸隔) 20)이라고 하는 『신심명』의 논파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보통청은 삼보를 청해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아뢰는 의례 이므로 법회가 끝나면 청해 모신 분을 돌려보내드리는 의식이 봉행되어야 한다고 II장에서 언급했다. 이와 같은 의례 양상은 상단권공 중단 권공 하단시식을 마치고 봉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의례가, 상단 권공 후 중단의 심경 염송과 하단의 법성계 염송으로 마치는 축소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수록재 사자봉송에서 봉송진언과 반야심주 염송으로 사자 봉송을 하는 예와 같은 인식이라면 중단과 하단의 심경과 법성계 염송이 봉송으로 이해할

19) 현재 삼보통청에 가용으로 활용되는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廣大願雲恒不盡 旺洋覺海妙難窮”은 불보가영이므로 경산수륙재에서는 『刪補梵音集』(『韓儀叢』 2집, 609하) 소재 삼보도가영을 채택하고 있다.

20) 隋 僧璨作, 「信心銘」, 376b21.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염송이 상단을 포함한 봉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지로 해석하자면 축원의 마지막에 염송하는 ‘마하 반야바라밀’이 진여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넓은 의미의 봉송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sup>21)</sup> 성현을 칭해 공양 올리고 나서 봉송하지 않고 다음에 또 봉송한다면 이는 예의에 맞지도 않고 수미일관하지도 않는다.

법회의례에서 맥락 불일치의 절정은 봉안해 신앙하는 불보살과 헌공하는 불보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석 예경과도 관련이 있지만 봉안 불보살과 헌공불보살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청하여 공양 올리는 의식인지, 봉안하여 모시고 있는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내외와 전후가 명확하게 일치할 때 법회 참석 대중은 자연스럽게 법회의례의 송고미와 지성미, 우아미에 몰입된다. 여기에 전통의 범음이 가미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 IV. 고백문의 낭송

불교인들은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이해하며, 타력종교들에 대해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자력종교라고 하면 자력수행종교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가 자력종교로 수용되고 있지만 불교의례 특히 헌공의례에는 자력적인 요소는 많지 않다. 특히 헌공의식에서 헌공을 할 때 부처님께 법회를 알리는 유치나 부처님들을 칭하는 청사, 가영, 헌좌, 변식, 헌공 등 일체의 행위는 법사스님들에 의해 진행된다. 공양을 올리는 재자들은 거저 열심히 빌고 절하며 기도를 올린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들께 재를 올리는 공불재승(供佛齋僧)이라

---

21) 이성운(2012), 163.

는 불교의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한국불교의 공양의례만 놓고 보면 공양을 올리는 주체들은 직접 공양을 올릴 수가 없다. 기껏해야 준비한 공양물을 법기에 담아 불단에 진설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진설이 공양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의례 의식을 보면 그것만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할 수 없다. 그것으로 공양을 마쳤다면 이후의 의식은 그야말로 허례허식이 돼 버린다. 이와 같은 공양의식이 허례허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양 올리는 재자의 공양 진설은 공양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는 공양을 올리는 재자는 공양을 직접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지 못하는 종교가 자력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양을 올려주는 법사스님은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사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자력종교가 되지 못하고 출가 수행자가 사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불교의 특성이 성립될 수 없다. 참선수행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자력종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례로 볼 때 한국불교가 제사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불교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진행되는 법회가 바람직한 법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행경』의 공양청 장면을 보자.

부처님은 어느 나무 밑에 앉으셨다. 그때에 암바바리라는 한 음녀가 있었다. ~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어 곧 부처님께 여쭙었다.

“나는 오늘부터 삼보에 귀의합니다. 허락해 주소서. 바른 법에 살면서 우배이가 되어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생물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과 제자들은 내일 저의 공양을 들어 주소서. 그리고 오늘 밤에는 우리 동산에서 쉬시도록 하소서.”

그때 세존은 잠자코 그 청을 들어 주셨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가하시는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로 그 발에 예배한 뒤 부처님을 돌고 돌아갔다.<sup>22)</sup>

암바바리 기녀는 예차 왕이 수많은 금은보화로 공양권리를 양도하라고 하지만 거절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렇듯이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거나 올릴 때 직접 언설한다. 암바바리가 부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보자.

암바바리는 그 날 밤 여러 가지 공양을 준비하였다. 이튿날 세존은 천 2백 50명의 비구들에게 각각 옷과 바루를 챙기게 한 뒤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그녀의 집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으셨다. 암바바리는 곧 맛난 공양을 차려 부처님과 스님들께 바쳤다. 공양을 마치자 바루를 거두고 상을 치웠다. 그때에 그녀는 손으로 황금병을 들어 손 씻는 물을 돌려 마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쭙었다.

“이 바이샬리 국에 있는 동산 가운데 우리 동산이 가장 훌륭합니다. 저는 이 동산을 여래에게 바치겠습니다. 저를 가없이 여기시어 이것을 받아 주소서.”<sup>23)</sup>

공양의 준비나 공양을 올리거나 헌공 이후 고백은 직접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회의식에서 법사스님들을 제외한 참가 대중의 고백은 대표가 나서서 아뢰는 발원문에 불과하다. 내가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연유나 부탁조차도 할 수 없다면, 자력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동참대중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잘 믿고 따른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전제의 중간에는 적지 않는 간격이 존재한다. 현대 우리나라

22) 佛陀耶舍共竺佛念 譯, 13b-c.

23) 佛陀耶舍共竺佛念 譯, 14b.

라 불교인들이 신앙하는 불교는 대승불교이고, 무불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루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다. 현재 우리들이 신앙하는 대승불교의 신앙관의 핵심은 초기불교 불타관과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육신의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법신부처님을 믿고 따른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례에 나타나는 모습은 밀교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행법이 시설된다.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에 편재하지만 수행의 부족으로 인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이를 수 없는 경지는, 진언으로 가지하며, 관력이 있는 법사스님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시설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식이 법사스님들에 의해 설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체 공양을 널리 퍼서 올리는 의식에 공양을 올리는 연유를 아뢰는 소문은 재자가 작성해 아뢰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 연산군 이래 소문을 재자가 직접 아뢰지 않으면서 스님들이 그것을 읽었다. 소문은 재자의 입장에서 재회를 열게 된 연유와 스님들께 부탁하고 재회의 대상을 청한다는 것을 아뢰는 것이다. 유치라고 할 수 있다. 유치의 내용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보살의 공덕은 훌륭하다는 것과 불보살이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신다는 것이다. 이를 상(上)유치라고 한다. 이어 ‘모년 모월 모일 어느 사찰로 나아가 도량을 건립하고 공양을 올리게 되었으니 정성 어린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하(下)유치를 한다.

그러므로 사바세계 남섬부주 대한민국 ○○처 청정도량에서 ○○처 거주하는 ○○인이, 이 공덕으로 일체의 고난은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는 강건해지고 육근은 청정해지며 마음속의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원만히 두루 통해지기를 바라오며 이 같은 ○○원을 이루고자 금월 금일 삼가 법연을 열어 조출한 공양구를 다함없는 삼보자존께 공양하옵니다. 정성으로 법요

를 거행하며 신기한 가피를 바라는 이들이 [설판재자] 삼가 싱그러운 향을 사르고 예로 칭하였으며, 백옥 같은 흰쌀을 올려 재를 차렸으니 공양물은 미미하오나 정성은 간절하오니, 자비 거울 돌리시어 작은 정성을 굽어 비취 주옵소서.<sup>24)</sup>

현재의 의문은 『작법귀감』(1826) 이래 법주스님이 아뢰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석왕사 『권공제반문』에는 ‘시이(是以) 삼보제자(三寶弟子) [모처(某處) 모인(某人)] 복위(伏爲)[모사(某事)] 이금월시일(以今月是日) 취어(就於)[모사(某寺)]’라고 하고 있다.<sup>25)</sup> 공양을 올리는 이가 어느 곳에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치가 범음으로 설행되면 법회가 훌륭하게 장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의미로 볼 때 법력이 있는 법사스님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재자를 대신해서 우아한 음성으로 설행되면 그 의미는 남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자가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있고 그 형식을 잘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해서 거룩한 공양의식을 장엄하기 위해 범음을 잘하는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하(下)유치라도 설판재자가 직접 아뢰어 불보살님을 대면하는 의미를 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헌공의식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동참자들은 스님들의 범음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들도 있다. 직접 유치를 아뢰라고 하면 힘들어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력 종교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뵈고 공양 올리며 아뢰는 말씀도 직접 하지 못한다면 타율적이 되고 타력종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이지 않은 현대

24) 안진호 편(1935), 『석문의법』하권, 2-3; 이성운(2018), 135-136.

25) 이성운(2012), 117; 안진호 편(1935), 『석문의법』하권, 2. “是以 娑婆世界 (云云) 以今月今日 虔設法筵 淨滄供養 帝網重重 無盡三寶慈尊 薰勸作法 仰祈妙援者 右伏以 蕪茗香以禮請 呈玉粒而修齋 齋體雖微 虔誠可愍 ~”

인들에게는 의타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법회가 오히려 적합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마냥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 V. 지문대로 실행

언어는 의사의 표현이다. 거기에는 생각과 행위가 담긴다. ‘지심귀 명정례 석가모니불’ 하며 언설로만 하는 경우는 없다. 절을 하는데 정례(頂禮)를 한다고 하면 정례를 해야 한다. 정례는 머리 곧 나의 가장 높은 정수리를 부처님의 발에 접촉하며 올리는 절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언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전제되어 있다. 의례 의식은 다 의(儀), 곧 거동에 관한 것이다. 거동은 들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다. 의문은 곧 대사이자 지문이다. 연극의 대본은 대사와 지문이 구별되어 서술된다. 의문은 거동의 문장이라고 하지만 거의가 대사 위주이다. 거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언어로는 “그래서 제가 일심으로 귀명의 정례를 하옵니다.(故我一心歸命頂禮)”라고 하면서 반배만 한다. 반배만 하려면 정례라고 하지 말고 저두(低頭)라고만 해야 한다. 필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지는 오래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를 부치는 것은 언설과 실행이 일치되지 않는 의식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논의해 보도록 하자. 한국 불교는 ‘천수경불교’라고 할 정도로 천수경이 많이 활용된다. 천수경의 공능과 천수주의 공능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다라니는 이름이 아홉 가지에 이를 정도로 그 공능이 많다. 소원을 채워주는 만원다라니, 일체의 악도와 업장을 깨부수는 파악다라니, 수명을 늘려주는 연수다라니 등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천수다

라니가 의례에서 활용될 때는 도량을 깨끗이 해주는 엄정용(嚴淨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 일반에서는 대체로 천수다라니를 결계용 다라니라고 언급하지만 현재의 헌공이나 법회의식에서 결계를 하는 행위는 한 곳도 없다. 현재의 법회는 법석의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석의 대표적인 영산법회에서 결계에 활용되는 다라니는 쇠정호마다라니가 쓰이고,<sup>26)</sup> 천수주는 엄정용으로 활용된다. 천수주를 염송하여 청수를 감로수로 변하게 한 다음 양지로 그 물을 묻혀 대중과 법당과 도량의 사방에 뿌려서 안팎의 도량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를 엄정이라고 한다. 대재의식에서 “복청대중용의엄정(伏請大衆用意嚴淨)”이라고 하며 신묘장구다라니를 염송한다. 그렇게 도량을 정화하였으니 엄정계송(현재는 도량계라고 칭해짐)을 염송하는 것이다. 현재의 천수경 구절이나 천수주가 활용되는 과거의 의문 어디에도 결계를 한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천수경은 재자와 도량을 정화하는 데 쓰이며, 천수주를 가지한 감로수를 뿌려 감로수가 닿는 곳에는 번뇌가 소멸하게 하는 정화의 역할로 쓰이는 것이다.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 천수다라니를 설해주십사 하고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의식이[啓請] 천수경의 전반부이다. 천수경 책을 보고 읽으면 되지 관세음보살을 청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계청>이나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계청><sup>27)</sup>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전 책자에 쓰인 진언이나 다라니를 읽는다는 의식은 오늘날의 인식이다.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고자 할 때는 그 경전이나 다라니를 설해주실 분을 청한다. 그분을 청해 모시고 그분에게 예경하고 공양한 다음 그분이 경전이나 다라니를 설해주시면 마음속에 잘 담아 두고[受持]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

26) 智還 集, 470중; 이성운(2011), 168.

27) 『五大眞言集』, 137.

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경전이나 다라니를 청하는 계청법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금강경계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경을 수지하고자 하면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정구업진언을 염송하고, 그런 다음에 8금강 4보살의 명호를 아뢰어 청한다. 머물고 있는 곳을 항상 옹호할 것이다.

이어 정구업진언 정삼업진언 안토지진언 보공양진언을 염송하고, 8금강 4보살을 청하고 발원을 염송한 다음에는 금강불괴신을 얻어 장수를 하고자 하면 어찌 읽지 않을 수 있으리오 하는 5언절구의 운하법을 염송하고 개경계(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我今見聞得受持 願解如來真實義)를 염송한 다음 금강경 본문으로 들어간다.<sup>28)</sup>

천수경 송경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안위제신진언(安慰諸神眞言)이 안토지진언(安土地眞言)으로 나올 뿐이다. 이 진언은 여러 신을 위로하는 진언이 아니고, 여러 신을 자리에 모시는 진언이다.<sup>29)</sup> 이 형식이 도입될 당시에는 법당 안에서 염송하는 형식이 아니라 야외 법석에서 단을 만들고 관음보살을 청해 뵈고 공양 올리고 다라니를 설해 받는 구조로 성안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경계에서 ‘아금문견득수지(我今見聞得受持)’가 아니라 ‘아금견문득수지(我今見聞得受持)’이다. 청해 모신 분을 뵈게 되고 다라니를 설해주시니 듣게 되면 마음속에 잘 수지하겠다는 것이다. 청해 모셨으니 공양을 올리는데 이를 제신을 위로하는 진언이라고 이해하다 보니 적지 않은 오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의문대로 설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개경계대로 이해하고 공양을 하거나

28) 孚佑帝君, 734c1-735b06.

29) 정각 저(1996/1997), 161; 이성운(2011), 52-56.

예경을 올려야 한다.

첫째는 사방찬에서 쇄수(감로수를 사방으로 뿌림)를 한다고 하였으니 쇄수를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방에 쇄수했다고 하는 것은 망언이다. 그러므로 천수다라니기도를 할 때는 천수다라니를 정한 편수만큼 하고 발원하고 자삼귀의로 회향하면 수미일관이 된다. 사방으로 물을 뿌리지도 않고 사방찬 도량찬을 염송하는 것은 의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 관상(觀想)으로 한다면 관상으로라도 행해야 한다. 관상을 하게 되면 의문 염송 방식이 현재와 같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관상(觀想)도 하고 염송(念誦)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상법사가 관상하고, 송주법사가 송주하는 삼밀행법과 유사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사방찬 도량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부터 삼보통청과 같은 청하는 의식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의 참회계송과 진언, 발원 등은 별도의 의례로 출발하였다고 보인다.<sup>30)</sup>

둘째는 헌공의 지문대로 헌공행위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7경례공양으로 행해지므로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 같은 의식행위로 연출하기가 어렵다. 변공의식을 통해 변식된 공양물을 올리는 헌공행위가 존치하기 어렵지만 변식된 공양물을 일일이 헌공하는 행위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경산수륙재에서는 실행되고 있지만 마지를 올리는 것 외에는 행위가 없고, 사시(巳時)가 되면 담당자가 마지를 올리고 헌공의문을 진행할 뿐이다.

셋째는 헌공의식은 재시 위주의 헌공의식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조계사 등 일요법회에서는 상단권공이 끝난 후 중단권공 때는 반야심경이 염송된다. 중단의 존재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30) 현행 천수경에는 천수다라니행법, 도량엄정행법, 업장참회행법, 준제지송행법, 회향발원행법이 존치되어 있다. 이성운(2011), 1-328.

못했으니 반야심경의 공 도리를 일러주어 깨달음을 이루라는 법시(法施)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우리식으로 이해한 것이다. 중단의 예경으로 쓰이는 반야심경은 예경도 아니고 법시라고도 주장하기도 어렵다. 중단 예경을 마치고 각 전각으로 나아갈 때 쓰이는, 나아가는 진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단의 법성게도 비슷한 공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반야심경이나 법성게는 진리의 핵심 요지를 담고 있는 훌륭한 법문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법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쓰이고 있는 공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진언은 봉송진언이나 행진곡처럼 장소 이동을 할 때 활용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고아일심귀명정례’를 언급하였듯이 현재 천수경의 마지막이라고 이해하는 ‘발원이귀명례삼보’에서 절을 해야 한다. 현재는 그 다음 의식의 거불인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의 제목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구절은 예경을 마치고 참회·발원·수회·권청·발원회향을 각각 마치고 하는 예경의문이다. ‘예경이귀명례삼보, 참회이귀명례삼보, 발원이귀명례삼보, 권청이귀명례삼보, 발원회향이귀명례삼보’<sup>31)</sup>라고 하여 ‘발원을 마치고 삼보님께 귀명례합니다’라는 지문 겸 대사이다.

행위가 전제된 대사를 하면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언어와 행위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고, 행위하지 않으려면 언설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신심 있는 행동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헌공의식은 사시마지를 제하고는 다 불러 청해 자리를 권해 앉으시도록 하고 헌공하는 형식이다. 이때는 오로지 지극한 믿음이 전제된다. 그분이 오시고 있고, 오셨고, 앉으셨고, 공양을 받으

31) 安震湖 編, 『釋門儀範』上卷(1935), 51-53. <관음예문>에도 이와 같은 형식은 잘 남아 있다.

시고, 기뻐하신다고 관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문과 대사를 염송만 한다면, 이는 신심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문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의례적으로 행하다 보니 ‘의례적’이라는 말이 생성되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을 청해 모시고 공덕을 찬탄하며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소원을 아뢰는 법회의례에서 행위를 하라는 대사를 하며 행위를 하지 않는 의례로 진행된다면 의례의 숭고미도 지성미도 올바르게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 VI. 결어

‘현대인을 위한 바람직한 법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글을 정리해야 할 때이다. 법회라는 의례는 전통의 삼보통청의 헌공의식과 근대의 강연의식<sup>32)</sup>에 기인하고 있다. 삼보통청의 헌공의식은 헌공의 목적이 영혼의 추천을 위한 것으로 공양이 목적이 아니고 법화경 독송이나 해설이 목적이었다.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설하여 그 공덕으로 선령(先靈)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의식에서 출발되었으며, 거양(擧揚)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순수한 공양의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의 법회를 보면 공양의식이 끝나면 법회를 새로 시작하여 헌공과 법회로 이원화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양의식의 보궐진언 이전에 청법계로 법사를 청하고 법문이 끝난 다음 하당할 때 정근을 하고, 이후에 축원을 봉행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중단퇴공과 하단시식으로 행해지는 염송의식도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상·중·하단의 의식들이 유기적으로 설행되어야 하며, 그 의미가 바로 논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도

32) 安震湖 編, 『釋門儀範』下卷(1935), 214.

록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실행돼야 한다.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지를 않는다. 혹자는 그것을 간혜(乾慧)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대의 열린 사회 시민들은 바로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어야 수용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신심만을 강조하는 법회는 현대인을 위한 법회라고 할 수 없다.

현대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국불교의 전통 범패가 활용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법회는 종교성이 낮아지고 감소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시간의 수록재라도 훌륭한 범음으로 진행된다면 신심이 고양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법회의 일부만이라도 범음을 활용하여 현대법회에 전통의 범음으로 아름답게 장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후 의식의 맥락이 일치되어야 한다. 삼청하였으면 삼청으로 공양 올리고, 공양을 올리려면 소청을 해야 한다. 지장청 등과 같이 수미일관되지 못하는 의식은 점검될 필요가 있다.

또 의례에 공양하는 재자들이 직접 공양의 간절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산수록재에서는 상단과 중단의 헌공부분은 전통의 소리에다 재자들의 고백을 살려나가고 있다. 자력종교를 자랑하는 불교의 헌공에서 자력성이 많지 못한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듣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도 하는 종교, 부처님께 자신의 정성을 직접 고백하는 경건하고 숭고한 순간을 현대 법회를 통해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 아된 대로 행위가 갖춰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언설이 논의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불교의례의 현실에는 의례실행의 갖가지 역사와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한자 한문의 장애라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시제가 없는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과정에 간략히 행할 때의 의식과 장황하게 행해야 하는 의식이 중복되기도 하고, 같은 의식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문으로 사유하는

세대는 극히 적다. 우리말과 글로 사유하고 소통하는 세상이다. 현재 행해지는 일요법회에는 천수경 등 일부는 우리말로 봉행되고 있다. 하나 적지 않은 부분은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인의 특징은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고 곧바로 느낌이 와야 한다. 언젠가 오래 불교를 믿어 신심으로 법회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현대인을 위한 법회는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지만 과감하게 그 구조를 개선하고 의례의 공양에 공양을 올리는 재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을 만나는 승고미를 맛보고, 의례의 형식과 내용의 이해를 통해 불교가 설하는 교설의 의미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의례는 지성미를 갖추게 되고 의례가 조화로운 완전체로 다가올 때 의례에서 우아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통이 이어지고 참여하며 수미일관의 언설이 일관될 때 그것들은 현대인들의 가슴에 곧바로 다가가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 佛陀耶舍共竺佛念譯, 『佛說長阿含經』 卷第二(『大正藏』 1)  
隋 僧璨作, 『信心銘』(『大正藏』 48)  
孚佑帝君, 『金剛經注解』(『大藏新纂已續藏經』 25)  
『刪補梵音集』(『韓儀叢』 2집)  
智禪 撰, 『五種梵音集』(『韓佛全』 12)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韓佛全』 11輯)  
巨璇 集, 『作法龜鑑』(『韓儀叢』 3)  
『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 2)

### 2. 단행본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심상현(2001), 『불교의식각론』 V, 한국불교출판부.  
安震湖 編(1935), 『釋門儀範』, 卍商會.  
Walpola Rahula(1959/1990),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Gordon Fraser.  
이성운(2011), 『천수경, 의케로 읽다』, 정우서적.  
\_\_\_\_\_(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조계종출판사.  
전북사암승가회 편(1986), 『우리말 불교의식집』, 호암출판사.  
정각 저(1996/1997), 『천수경연구』, 운주사.

### 3. 논문

- 김응철(2009), 「법회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선문화연구』 제9집, 선리연구원.  
申圭卓(2013), 「日曜法會儀禮 한글화 試論」, 『정도학연구』 21, 한국정도학회.  
이성운(2012),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은경(2010), 「어린이 법회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불교신문>2595호(2010.2.3.)~2635호(2010.6.30.)

**[Abstract]**

The first consideration of the program of Dharma  
meeting for modern people  
- Dharma meeting with both tradition and aesthetics -

**Lee, Sung-Woon**

Buddhist Ritual Culture Institute

This essay considers the rituals for Dharma meeting suitable for the life cycle of modern people, which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Dharma meeting split into hanging (獻供, offering) and Dharma talk should be combined so the Dharma teacher should be asked with Cheongbeobge (請法偈, the asking Dharma stanza) before the supplementary mantra (補闕眞言) in offering ceremony and Jeonggeun (精勤, fervent discipline) should proceed while he or she walks off the stage after their Dharma talk.

Secondly, Beomeum(梵音, Brahma voice) should be utilized in the Dharma meeting. The traditional Beomeum should adorn magnificently the modern Dharma meeting and the beginning and ending contexts of the rituals should connect with each other.

Thirdly, people who serve the offering should show their sincerity while offering.

They should have the chance for noble and pious experience by devoting themselves to Buddha in a direct way.

Fourthly, the directives in the ritual text should be performed literally, even though there's a overlap between the brief ritual and the detailed one in Chinese characters with no tense.

The modern Buddhist rituals with these systems would be sublime, intelligent and graceful, which every participant will notice. Then it will be unified and have a tradition, which the masses can take part in and the performance of the ritual matches up its text.

Key words: Dharma meeting, Beomeum (梵音, Brahma voice), Sambo tongcheong (三寶通請, universal invitation of the Three Jewels), the supplementary mantra, Geobul (舉佛, bowing and calling the name of the Buddha in front of the Buddha statues), Sangwiui (三歸依, taking refuge at Three Jewels), offering, Dharma talk

투고일 : 2019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28일